

## 미국, 중동지역에 전쟁 보상성격의 원조 제공

### □ 부시 대통령, 의회에 중동지역에 대한 원조 요청

- 지난 3월 25일 부시 美대통령은 의회에 747억 달러 규모의 전쟁예산 승인을 요청했음. 그런데 이 예산에는 일부 중동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지역을 위해 할당된 금액은 총 36억 달러이며, 지원 대상국가는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오만, 바레인, 팔레스타인 등임.
- 특히,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등 3개국에는 23억 달러의 원조자금과 더불어 최대 195억 달러의 채무보증도 제공키로 하였음.
- 그러나 미국의 지원내용 대부분은 국가별로 이행조건이 수반되며, 美의회가 행정부의 요청대로 전액을 다 승인할지도 미지수임.

### □ 터키, 미국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로 잃은 것 많아

- 미국은 터키에 대해서 10억 달러의 원조자금과 85억 달러의 美정부 보증을 제공할 예정임. 그러나 이 지원규모는 당초 미국과 터키 정부 사이에 논의되던 지원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임.
- 지난 3월 1일 터키 의회가 미지상군 병력 62,000명의 터키 통과 결의안을 근소한 차이로 기각시키기 직전까지 양국은 60억 달러의 원조자금과 최대 240억 달러의 보증 제공에 합의하였음.
- 터키 의회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야 美항공기의 자국영공 통과를

허용하였으며, 뒤이어 터키군은 난민방지와 이라크 내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이라크 내 진입을 시도하였음. 한편, 터키 정부는 미국의 경제지원이 원래 합의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점을 애써 강조하였음.

- 그러나 축소된 지원내용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터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풀이되며, 그나마 터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미국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美의회가 원안대로 통과시킬지도 미지수임.
- 또한, 터키의 이라크 진입 요구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미국이 강경한 자세로 선회하자, 터키군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과 합의 하에 이라크에서 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로써 이라크 영토 내에서 터키군과 쿠르드족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은 크게 줄었으나, 이라크 쿠르드족의 동향에 민감한 터키는 전후 쿠르드족의 위상변화에 관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전쟁에서 여러 가지로 체면도 구기고 실리도 잃게 되었음.

## □ 터키, 채무상환능력에 관한 우려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 지난 3월초 의회의 미지상군 통과 결의안 부결 직후 터키 정부는 부랴부랴 금년도 긴축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이는 지난해 170억 달러 규모의 IMF 대기성차관 중 현재 인출되지 못하고 있는 17억 달러의 인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터키 정부는 기초재정수지를 GNP의 6.5% 흑자로 유지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IMF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음.
- 내년부터 3년간 공공채무 상환이 집중되는 터키로서는 미국의 경제지원이 없을 경우 채무상환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으며, 미국의 경제지원이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터키는 GNP의 약 85%에 달하는 국내외 공공채무 상환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없게 되었음.

## □ 이스라엘에도 10억 달러 배정

-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와 90억 달러 규모의 보증 제공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제개혁을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음.
- 이스라엘 정부도 재정지출 축소, 민영화 추진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美의회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는 원조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 이집트, 아랍국가 중 최대 수혜국

- 부시 대통령은 이집트에 대해 3억 달러의 원조와 20억 달러의 보증을 제공키로 했음.
- 지난 1월말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집트 정부는 급기야 은행시스템 내 외환을 묶어두기 위해 직접적인 외환통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음.
- 미국의 지원과 세계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이 약정한 10억 달러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아랍국가 중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경제지원을 받게된 이집트는 비등하는 반미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야 할 부담을 안게되었음.

## □ 기 타

-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4억 6백만 달러의 군사원조와 7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받게 되었음. 경제지원액 중 2억 5천만 달러는 의회 승인 즉시 제공될 것으로 보임.

- 
- 요르단에 적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비등하는 반미여론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정부가 미국을 지지한 데 따른 것임. 이 지원으로 요르단은 안보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라크로부터 저가의 원유공급 감소와 관광수입 감소분을 보상받게 되었음.
  - 그밖에 바레인도 미국에 해군기지를 제공한 대가로 9천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걸프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충실히 지지해준 오만은 6,150만 달러가 배정되었음.
  - 한편,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표시로 5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되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